

숲속 캠핑과 노천온천을 동시에 새단장한 이천 '테르메덴 풀앤스파' 문 열어

글 · 사진 권혁창 기자



1

테르메덴 풀앤스파 제공

- 1 리뉴얼한 테르메덴 풀앤스파의 인피니티풀 야경
- 2 테르메덴 풀앤스파 입구 3 테르메덴 실내 풀 모습
- 4 카라반 캠핑단지에서 바라본 테르메덴 실외 풀 전경
- 5 숲속 카라반 캠핑 시설



2

테르메덴 풀앤스파 제공

경기도 이천의 온천테마파크 '테르메덴'(Termeden)이 온천욕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애경그룹 계열사 AK레저는 '테르메덴 풀앤스파(Pool & Spa)'를 70여일간의 리뉴얼 공사 끝에 지난 7월 16일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설 규모가 3배(3천966㎡→1만2천231㎡)로 늘어났다. 실내는 바테풀, 남녀대욕장, 찜질사,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등이 새 단장을 했고, 옥외에는 인피니티풀, 키즈풀, 화염온천분수, 웨이브볼풀, 풀파티 시설 등이 새로 들어서거나 2030세대가 좋아할 최신식으로 꾸며졌다. 선베드와 카바나도 늘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존 시설이 온천수를 이용한 전형적인 스파였다면,



3

리뉴얼한 시설은 다양한 고객층이 실내외를 오가며 힐링과 레크리에이션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온천욕을 한 뒤에는 ▲ 편백나무방 ▲ 황토방 ▲ 소금방 ▲ 맥반석방 등 찜질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 패밀리홀 ▲ 릴렉스룸 ▲ 안마의자룸 ▲ 키즈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테르메덴만의 특징이라면 숲속 카라반 캠핑단지다. 실외 워터파크가 내려다보이는 호젓한 숲속 언덕에 4천㎡를 새롭게 조성해 기존 대비 2배 늘어난 30개 동의 럭셔리 카라반이 자리를 잡았다. 내부 침구도 호텔급으로 구비해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였다. 카라반 투숙객은 바비큐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내려와 실외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 카라반 옆 타프 밑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숲속의 밤을 즐길 수도 있다.

테르메덴 풀앤스파 관계자는 "리뉴얼한 시설은 온천욕과 산림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종합 힐링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추구한다"면서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스파 시설이 되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르메덴은 2006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독일식 온천시설로 문을 열었고 2013년 AK레저가 인수했다. 지난 12년간 누적 방문객 수가 450만명에 이른다. ▼



4



5